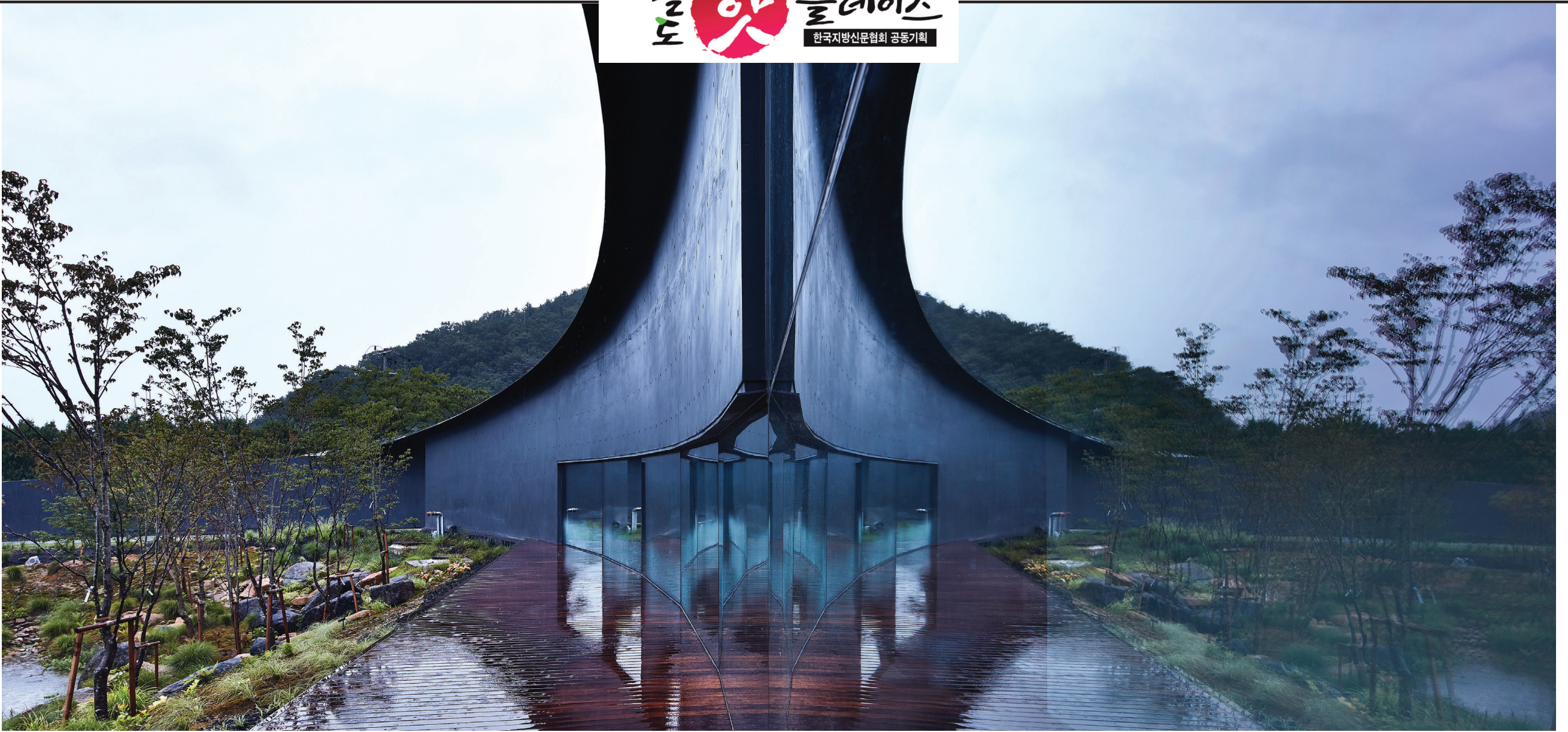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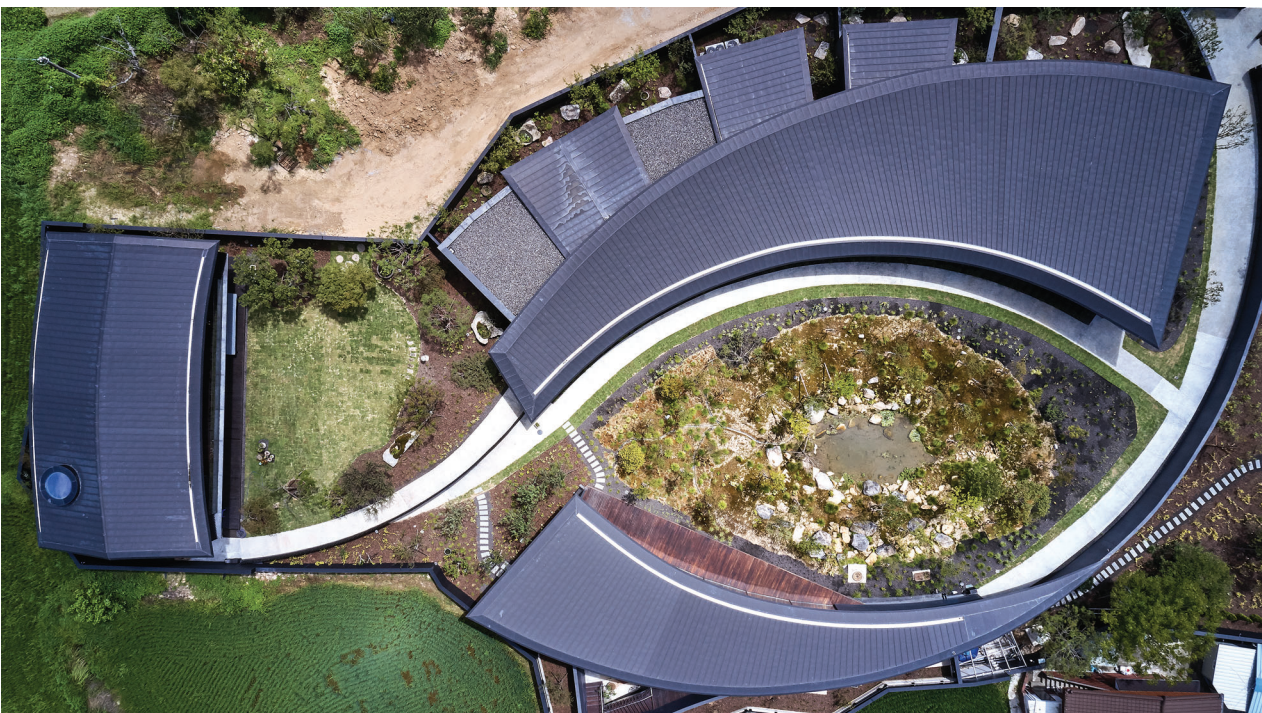


경북 칠곡군 복합문화공간 시호재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국내의 건축상을 잇따라 수상했다.

〈김용관 작가 제공〉

자연·건축·예술 ... 그곳에 가면 세번 놀란다

경북 칠곡 복합문화공간 '시호재'



하늘에서 본 경북 칠곡군 시호재.

팔공산맥 수려한 산세, 건축과 조화
프라이빗 뮤지엄 등 갖춘 복합문화공간

세계적 건축가 고(故) 이타미 준 장녀 설계
'iF 디자인 어워드' 등 건축상 트리플 크라운

인생샷 찍기 좋은 장소로 전국구 인기
음악회·패션쇼 등 행사 통해 지역과 상생

'삶에 심표를 찍으며 잠시 여유를 삼을 수 있는 곳'
마음의 고향처럼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경북 칠곡
군 복합문화공간 '시호재' (時孤齋 시간을 향해 쓰는
할)에 오면 편안함이 밀려온다.

기본 좋은 바람과 공기의 향기와 촉감을 소재로 연
주되는 고향곡을 떠올리도록 설계된 건물. 넉넉한 자
연의 품으로 들어가는 듯한 편안함과 동시에 건축주
의 환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.

그야말로 빛과 바람과 인간이 빚어낸 최상의 건축
물이다. 구름과 햇빛이 건물 사이로 흘러간다. 불규
칙하게 지나가는 바람은 일렁임을 만들면서 여운의
한 자락을 남긴다.

인생 샷을 찍기 좋은 장소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
타고 있는 시호재이다. 경북 칠곡에서 가장 핫한 곳
이다.

◇세계적인 건축상 잇따라 수상

시호재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건축부문을
잇따라 수상하면서 트리플 크라운(triple crown)을

달성,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명소로 주목받고 있
다. 'iF 디자인 어워드 2025'와 '2025 독일 디자인 어
워드(German Design Award)', '제47회 한국건
축가협회 건축상'을 받아 국내·외에서 디자인적 가치
를 인정받은 덕분에 건축학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
고 있다.

'iF 디자인 어워드'는 1954년부터 시작된 세계적
으로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인상 중 하나로 매년 혁신적
인 디자인을 선정·수여하고 있다.

이번 디자인전에는 66개국에서 1만1000여개의 건
축물이 경쟁을 벌였으며, 국제 디자인 전문가 131명
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 설계
로 시호재가 인정을 받은 것이다.

1969년부터 이어온 '독일 디자인 어워드'는 세계
최고 수준의 국제 디자인 경연으로, 수상 경력이 있
는 작품이나 초청받은 작품만이 참가할 수 있다. 권
위 있는 심사 기준과 공신력으로 디자인 업계에서 중
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.

1979년 제정된 '한국건축가협회 건축상'은 매년 가
장 우수하고 가치 있는 건축적 성취를 이룬 작품을 대
상으로 수여된다. 46년간 국내·외 건축가들의 공로를
기념하며 국내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손꼽혀
왔다는 평가다.

◇자연을 품은 시호재

시호재는 2023년 5월 문을 열었으며, 경북 칠곡군
망정리에 자리 잡고 있다.

이 공간은 게스트하우스와 카페가 결합된 프라이
빗 레지던시로, 대지면적 3천824㎡, 건축면적 928.9
㎡ 규모에 지하 1층, 지상 2층 높이의 건물 세 동이
활 모양처럼 휘어져 연결돼 있다.

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지금껏 쉽 없이 인생의 여정

을 남아있기에 다시금 방향을 찾아 겨누는 동안 여유
를 갖기를 원한다는 뜻을 담았다.

시호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프라이빗 뮤지엄
등을 겸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연과 건축이 조화
를 이루는 공간 설계를 통해 깊은 인상을 남긴 작품이
다.

팔공산맥의 수려한 산세 속에서 자연과 건축이 어
우러지는 방식을 고민하며 설계됐다.

건물 배치는 마치 넉넉한 품으로 방문객을 맞이하
는 듯한 형상을 띠고 있다.

특히 건물의 지붕선은 산세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
고 조화롭게 자리 잡도록 설계됐으며, 실내에서는 정
원의 연못을 통해 비치는 하늘과 빛, 그림자의 움직
임을 경험할 수 있다.

서쪽 원은 갤러리 겸 카페로 활용되며, 동쪽 원은
독립적인 게스트하우스로 구성되어 가족 단위 방문
객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됐다.

시호재는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 독창
적인 공간 설계로 주목받고 있는 ITM 유이화건축사
사무소 유이화 건축가가 설계했다.

유 건축가는 재일교포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이며
자연의 건축 재료로 삼아 '바람의 건축가'로
불린 고(故) 이타미 준(한국명 유동룡)의 장녀이다.

ITM 유이화건축사사무소는 시호재를 비롯해 유동
룡 미술관, 방주교회, 하늘의 소리 등을 진행했다. 국
내는 물론 해외 어워드에서 수상을 이어가며 그 실력
을 인정받고 있다.

유 건축가는 "훌륭한 건축물은 훌륭한 건축주가 있
어야 탄생할 수 있다. 박용해 회장님은 최선을 다하
는 예술가들을 끝까지 응원하는 것처럼 무한 신뢰를
줬다"면서 "시호재가 팔공산의 사계절을 담아내는 자
연의 조연으로 완성된 것 같다. 시간이 아무리 흘러
도 사람들이 찾아와 마음의 쉼을 찾는 장소가 됐으면
좋겠다"고 설명했다.

이러한 설계는 조경가 김봉찬과 협업해 더욱 완성
도를 높였다.

국내외 다수의 조경 프로젝트를 담당한 더 가든의
김 조경가는 야외 갤러리를 제주풍으로 조성해 특색
을 더했다.

건축과 조경이 함께 만드는 이 공간의 조화는 단순
한 건축물이 아닌 시간과 자연이 함께 흐르는 하나의
'장소적 경험'을 제공한다.

'브랜딩 컴퍼니'의 한주희 대표는 건축물에 '시호
재'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내부 디테
일한 디자인과 소품 기획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.

◇지역과 상생하는 복합문화공간

시호재의 예술적 가치는 박용해 탐관토탈솔루션
회장이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더욱 돋
보인다.

박 회장은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그림과 도자기,
화병 등을 연중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
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.

뿐만 아니라 시호재는 음악회와 패션쇼 등 문화 행
사를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
자리 잡았다.

지난해 6월에는 '보이스 오브 소프라노'의 정기공
연 '서머 드림'이 성황리에 열렸고, 계명대학교 패
션디자인학과와 미니패션쇼가 개최되며 지역 주민과
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선사했다.

한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(위원장 박순
범)는 지난달 17일 시호재에서 현장간담회를 연 뒤 문
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곳곳을 둘러보았다.

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"칠곡에 iF 디자
인어워드 2025 상을 받은 시호재가 전국적인 명소가
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
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

박용해 회장은 "세계적 건축 상을 잇따라 수상한 것
은 시호재에 큰 영광"이라며 "앞으로도 다양한 예술과
문화 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
만들겠다"고 밝혔다.

/매일신문 전병용 기자 yong126@imaeil.com



시호재 내부 전경.